

농촌여행 스타마을 ‘임실치즈마을’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주관 전국 1200여개 마을 중 최종 20선 선정 쾌거

국내 최초 치즈 생산지이자, 임실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임실치즈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5 농촌여행 스타마을 20선’에 최종 선정됐다.

스타마을 20선은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역 고유 자원과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펼치는 마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 체험 콘텐츠의 독창성·차별성, 숙박·식사의 품질, 스토리텔링,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임실치즈마을은 국내 최초 치즈 생산지로서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국내 첫 치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다. 치즈 및 피자 만들기, 유제품 가공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덴마크 페로제도에서 온



국내 최초 치즈 생산지이자, 임실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임실치즈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5 농촌여행 스타마을 20선’에 최종 선정됐다.

스카우트 대원 11명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임실치즈마을을 방문해 4차 5일 동안 한국의 문화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했다.

군은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산물인 임실치즈를 중심으로 한 체험 관광 자원을 확대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임실치즈마을의 스타마을 선정이 임실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연계 관광 본격화

순창군, 일본 쿠라시키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대상 ‘순창투어’ 진행

순창군이 외국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홍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일본 쿠라시키 선수단을 초청해 순창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순창투어’를 진행했다.

투어는 8월 21일 하루 동안 진행됐으

며, 지도자와 초등부 선수, 학부모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선수단은 먼저 강천산군립공원을 찾아 울창한 숲과 계곡을 거닐며 순창의 청정 자연을 체험했다.

이어 고추장 민속마을 장류 체험관을 방문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음식문화의 깊이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은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외국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대상으로 강천산과 장류체험관 등 주요 관광자원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순창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우호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탱구알버섯’ 12년 연속 발견

남원시 산내면 관계자는 세계적 희귀종인 ‘탱구알버섯’이 산내면에서 12년 연속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산내면 임석마을 주지환(62) 임석 이장은 자신의 사과 농장에서 탱구알버섯 1개를 발견, 2014년 처음으로 탱구알버섯을 발견한 임석마을 주지환 이장부터 올해로 12년 연속으로 발견했다. 이번에는 총 7개의 탱구알버섯이 발견되었으며, 가

장 큰 버섯은 볼링공 크기만 하다.

‘탱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판,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며,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전주, 담양 등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이



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견된 경우는 흔치 않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베트남과 협력 모색한다

베트남 호치민시 경제사절단, 내달 18~19일 남원 방문

남원시는 베트남 호치민시 응우옌 반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경제사절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호치민시 관계 공무원,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김년호)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경제사절단이 남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경제사절단은 첫째 날에 남원시와 우호교류협력(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산업, 문화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날은 남원시 노안산업단지에 소재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를 견학하며 코빅스, 원스킨, 한미화장품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둘러본다.

베트남 시장은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도가 등 라이프스타일 중시 경향과 K-팝(POP), K-컬처(CULTURE) 등 영향으로 K-뷰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뷰티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 남원시는 세계 뷰티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중앙부처의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남원 뷰티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3년까지 수출 1,000만불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원시는 베트남 호치민시 응우옌 반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경제사절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호치민시 관계 공무원,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김년호)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경제사절단이 남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경제사절단은 첫째 날에 남원시와 우호교류협력(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산업, 문화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날은 남원시 노안산업단지에 소재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를 견학하며 코빅스, 원스킨, 한미화장품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둘러본다.

베트남 시장은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도가 등 라이프스타일 중시 경향과 K-팝(POP), K-컬처(CULTURE) 등 영향으로 K-뷰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뷰티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 남원시는 세계 뷰티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중앙부처의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남원 뷰티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 3년까지 수출 1,000만불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소식통

임실군가족센터, 가족관계 회복 위한 무료 전문 상담

임실군가족센터가 지역 주민을 위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 회복을 돕는 무료 전문 상담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부부 상담, 부모·자녀 상담, 1인 가구 상담, 다문화가족 상담 등 대면상담과 집단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상담도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주 1회(50분) 진행되며, 부부 및 가족 상담은 총 10회기를 제공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가족 간의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 상담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다만 군은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와 상담은 순창군청 징수팀(063-650-1368)을 통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남원시보건소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조기 발견과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와 협력해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결핵 증상, 전파 경로, 정기 검진의 필요성과 특히 2주 이상 장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우호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검진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실내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흉부X선 검사로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소견자는 가래검사까지 추가로 진행해 결핵 여부를 진단한다. 이러한 검진방식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증상자, 건강 검진 유소견자, 기숙사 입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순창군은 축산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축산장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